

연말 '연예대상'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1일 KBS를 시작으로 28일 SBS, 29일 MBC가 각각 연예대상 시상식을 연다. 시청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상 후보들에게 쏠린다. 올해 각 방송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이들, 유재석, 박나래, 전현무이다. 스포츠동아가 가상의 '3사 통합 연예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들의 장점을 꼽는 '선거 유세'를 들었다. 당신의 표는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호 1번

유재석



대세된 유산슬 무궁무진 변신

매년 대상 후보에서 빠지지 않는다. 올해에는 특히 '변신'에 힘을 기울였다. 무대는 MBC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드림과 트로트에 도전했다. 데뷔 28년 만에 '신인'의 명찰을 새로 달았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 노래 '합정역 5번 출구'를 구성지게 불러 중장년층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이제 트로트 가수 활동명인 '유산슬'로 더 자주 불린다.

동시에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tvN '유퀴즈 온더 블럭'으로 소탈한 매력까지 뽐냈다. 9년째 출연 중인 SBS '런닝맨'으로는 8월 첫 국내 팬미팅을 소화했다.

이처럼 다양한 도전은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예능 신(神)이 아닌 '동네 형' 같다"는 반응을 얻었다.

▶SBS '런닝맨' 정철민 PD "방송 밖에 모르는 바보"

▶기호 2번

박나래



스탠딩의 여왕 숨은매력 발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MBC 방송연예대상 후보로 꼽히고 있다. 진가는 '나 혼자 산다'에서 발휘했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연기자 이시연과 성훈, 웹툰작가 기안84 등 개성 강한 출연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본업에도 충실했다. 6월 '박나래의 농염주요의보' 공연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11월23일 KBS 2TV 코미디프로그램 '스탠딩'을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스탠딩 코미디 장르를 과감하게 내세워 '신선하다'는 호평을 이끌었다. 성과도 눈부시다. '스탠딩'은 내년 1월 말부터 정규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코미디쇼인 '연말엔 tvN-박나래쇼'를 24일 선보인다.

▶MBC '나혼산' 황지영 PD "도전이 두렵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조지나"

▶기호 3번

전현무



가족예능 섭렵 소통의 회장님

KBS 2TV '해피투게더4'와 tvN '문제적남자' 등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인문예능'으로 일컬어지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과 tvN '요즘책방:책 읽어드립니다' 등 교양예능 분야에도 나섰다. 역사 정보와 여행 예능프로그램을 합친 '선'을 넘는 녀석들' 시리즈는 시즌3까지 이어졌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로는 중장년층 시청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요리연구가 심영순, 요리사 이연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장님'들과 직원들의 일상을 담은 무대에서 다양한 세대의 출연자들과 소통했다. 일요일 오후 5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최고 시청률 11.2%(12월8일·닐슨코리아)를 돌파했다.

▶KBS 2TV '해투4' 김광수 CP "예능판을 볼 줄 아는 영리한 남자"

연예뉴스 HOT 4

서태지 부부, 평창동 단독주택서 이사

가수 서태지와 연기자 이은성 부부가 최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이사했다. 18일 서태지컴퍼니는 "이들 부부가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서태지 부부는 2014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집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들의 새 터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태지는 2009년 이 집의 부지를 40억 원에 매입해 2012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집을 지었다. 현재 시가는 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태지는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정가은, 전 남편 사기 혐의로 고소

연기자 정가은이 전 남편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가은은 1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으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남편 A씨가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인감도장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A씨와 결혼해 딸을 출산하고 이듬해 이혼했다.

'부재의 기억' 아카데미 단편다큐 후보

이승준 감독의 영화 '부재의 기억'이 내년도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다큐멘터리 부문 예비후보에 올랐다. '부재의 기억'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와 국가의 역할에 관해 묻는 작품이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국제극영화상(외국어영화상)과 주제가상 부문에 예비후보로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편의 작품을 명단에 올렸다. 최종 후보작은 내년 1월13일 발표된다.

휘성, 건강 이유로 전국 콘서트 취소

가수 휘성이 건강상 이유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 18일 소속사 리얼솔로 우썰퍼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됐던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윈터, 폴(Winter, Fall)' 공연이 아티스트의 건강상 문제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휘성은 공연 연습 도중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검진 결과 대둔근 파열, 무릎에 물차는 증상 등을 확인받았다.

데뷔 13년만에 뜬 '염따'...무명 래퍼의 반란

최근 발표한 '아마두' 멜론 1위 등극 수리비 위해 판 티셔츠로 인생 역전



래퍼 염따

무명 래퍼의 '반란'이다. 래퍼 염따(염현수·35)가 데뷔 13년 만에 화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힙합장르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지만, 대중에게는 아직 낯선 그가 각종 주요 음원사이트를 휩쓸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는 염따 외 4명이 최근 발표한 '아마두'가 1위를 차지했다. 음원을 공개한 3일 10위권 밖에 있다 차근차근 순위가 오르기 시작해 이날 오전 7시 결국 1위에 등극했다. 지니, 벡스, 소리바다 등 다른 차트에서도 모두 5위권에 랭크됐다. 14일 발표한 신곡 '아만다'도 각종 주요 차트 50위권에 진입했다.

다모임은 염따를 비롯해 답플로우, 팔로알토, 더 콰이엇, 사이먼도미닉 등 1984년 생들의 힙합모임으로, 이들은 실제 16년 지기 '절친'들이다. 그 전까지 더 콰이엇이나 답플로우, 팔로알토, 사이먼도미닉 등은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꽤 알려진 편이지만, 염따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다.

'염현수 왕따'의 줄임말을 활동명으로 한 염따는 2006년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다 9월 더 콰이엇의 최고급 자동차를 들이받으면서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됐다. 그는 당시 3억 원이 넘는 수리비를 벌기 위해 티셔츠 등을 판매했고, 운 좋게 '초대박'을 치면서 결국 음악적 관심까지 모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발 그만 사라. 이를 만에 12억 원을 벌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신조어로 떠오른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는 말도 염따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주 사용하면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플렉스(Flex)란 힙합문화에서 파생된 용어로 '돈을 쓰며 과시하다'는 의미이며,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도 '플렉스' 코너를 선보였다.

염따는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에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1등을 해버렸다" "말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일 벗은 '백두산'...이병헌·하정우 '케미' 곳

실감나는 화산 폭발에 '눈호강' 절제절명 위기 속 웃음도 녹여

백두산이 폭발했다. 그에 따른 강진으로 평양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파괴됐고,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들까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린다. 뒤잇는 2차 폭발로 팔당댐이 붕괴되고, 3차 폭발은 그나마 남은 건물까지 주저앉게 만든다. 가장 강력한 마그마를 품은 4차 폭발만큼은 막아야 한다. 영화 '백두산'이 담은 조유의 재난현장이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규모인 순 제작비 260억 원의 대작 '백두산'(제작 텍스터스튜디오)이 개봉을 하루 앞둔 18일 시사회를 열고 베일을 벗었다. 규모는 물론 이병헌과 하정우, 마동석 주연,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사의 새로운 도전이란 점에서 줄곧 주목받아온 작품이다. 막판까지 시각효과 등 컴퓨터그래픽에 공을 들인 '백두산'은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초도화한 남북한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화려한 출연진과 볼거리, 백두산 화산 폭발이란 소재 등 대중적 재미로 흥행을 예측케 한다.

이야기는 전역을 앞둔 조인창 대위(하정우)와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북한요원 리

준평(이병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4차 폭발을 막기 위한 비밀작전이 수립된 가운데 조인창이 이끄는 작전팀은 몰래 북한에 침투해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핵탄두를 빼내 폭발을 막으려 한다. 처음엔 대립하던 이병헌과 하정우가 백두산으로 향하면서 점차 신뢰를 쌓는 과정은 전체 상영시간 128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백두산'은 한반도가 사라질 수 있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배경이지만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않다.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꽤 있다. 기존 재난극과 가장 차별화한 부분이지만, 인물들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 '신과함께' 시리즈의 김병서 촬영감독과 함께 연출한 이해준 감독은 "재난이라고 해도 24시간 동안 힘들게 있을 순 없지 않을까"라며 "오락적인 장르 영화를 구상하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 소재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남북상황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주연은 물론 제작에도 참여했다.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등 재난영화에 애정을 드러냈던 그는 "개인적으로도 흥미 있는 장르"라며 "이번엔 총력전도 많아 상당한 위험과 긴장 속에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